

Y세대에 佛心심는 선재들



▷ 금정중학교 금정인터넷클럽회원들은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방과후 시간을 할애해 다양한 내용을 입력하고 있다.

부산 금정중 '인터넷 클럽' 동아리

홈페이지 고리·설법 올려 신심 높여 방황하는 청소년들에 참된길 제시

통신을 통한 불교알리기에 한마음을 모은 청보리들이 있다. 부산 금정중학교의 금정인터넷클럽(KIC) 회원들이 홈페이지를 개설, 통신망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97년 8월 개설된 금정인터넷클럽(http://kumjong.ml.org/) 불교방은 진리의 길, 진리의 등불, 교법사 설법, 불교기초교리, 불교반소식 등의 메뉴가 개설됐다. 이 가운데 현역 교법사의 설법은 정신적 방황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참된

길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매년 부처님오신날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교생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신문 '진리의 길'을 제작하는 한편 홈페이지에도 입력해 전국 또래들의 참여를 이끌고 있다. 이밖에도 홈페이지에는 학습자료실과 공개자료실, 금정중학교 소개 등이 개설돼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금정인터넷클럽은 1년전 유안드레이(98년 졸업)군이 통신을 이용,

학습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 및 계획서를 건의했던 것이 홈페이지 개설의 첫걸음이 됐다. 금정인터넷클럽은 1년 사이 방문자수만도 2천7백여건이 될 만큼 갈수록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도를 받고 있는 김경만 선생님(수학교사)은 "처음 금정인터넷클럽을 지도할 때 청소년들의 성향에 맞는 불교적 내용을 입력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용해 고맙다"라며 흐뭇해 했다. 지도교사와 회원들은 종합학교인 금정중학교에서 입력한 불교내용에 오류가 없으면 불교전체를 부끄럽게 할 수도 있다고 판단, 불교공부에도 열심이다. 금정인터넷클럽 회원들은 알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일 점심시간과 방과후에 그래픽 디자인 개선, 아이콘 제작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한다. 금정인터넷클럽은 학생들의 포교와 신심함양을 위해 사찰과 불교관련 사진수집에서부터 경전, 불교논문 등까지 입력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opia.com)

우리절 불사 홍천 '강릉사'



▷ 강릉사가 생화불교실천도량으로 건립하고 있는 불교회관. 원내는 주지 원도스님.

도심불교 산실 '불교회관' 건립

강원도 홍천불교가 산중불교에서 도심불교로 거듭나기 위한 큰 걸음을 걸기 시작했다. 생화불교실천도량을 표방한 강릉사(주지 원도) 불교회관이 건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97년부터 터득기를 시작한 강릉사 불교회관 불사는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홍천을 희망하는 건립되고 있는 불교회관은 총건평 9백여평에 4층규모로 98년 부처님오시날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원도스님은 "앞으로 불교회관 및 관에 지주수를 개발해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릉사는 이번 불사를 산도지역 방식으로 추진해 주위의 눈길을 끌고 있다. 불교회관 기공식 이후 지금까지 전문적인 공사 이외에는 신도들이 직접 참여 하고 있다. 4~5명이 1개조로 편성된 여성도들은 각기 쌀, 반찬류를 직접 가져와 공양을 제공하고, 남자신도들은 못배기, 벽돌나르기 등의 잡역을 하고 있다. 강릉사 불교회관 불사는 1천5백여가구의 신도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불교회관 건립을 위해 강릉사는 건축사외에도 예산절감, 불심함양과 신도회합이라는 부대효과도 얻고 있다. 스님은 "신도들의 불심을 일으키는 데는 기도나 법회도 중요하지만 사찰운영에 신도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 신도들이 중무량정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립하고, 노인들을 위해서는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와 장수대학(가칭)을 개설해 열린도량(gamja@buddhopia.com)

충북 7개사찰 연쇄혜불

미덕사등 열흘새 '불상·탱화 손상'

충청북도 충주와 제천시 지역 사찰 7곳에 3일~11일 사이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연쇄 혜불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충주시 살미면 미덕사가 피해를 입었으며, 4일에는 충주시 이류면 해인정사가, 6일에는 충주시 안림동 백운사가 불상과 탱화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10일에는 지역적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사찰 3곳에 연이어 혜불사건이 발생했다. 오전9시 30분경 충주시 산적면 영덕리 해월사, 오후시 30분경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 미륵사에서 혜불이 일어났으며, 이

충남 등 정황중거로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덕사 주지 성일스님은 "이번 사건은 정신이상자의 소행이 아닌 계획적 혜불행위로 하루속히 범인을 검거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충북지방경찰청은 12일 오후3시 지역내 11개 경찰서 수사과장 회의를 열고, 또다른 사찰의 피해여부 확인과 피해사찰에 경찰병력을 배치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용의자와 용의자탕 추격에 나섰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opia.com)



▷ 법흥사는 8일 중흥불사 천일기도 및 10만등불사 입재식을 봉행했다.

법흥사 중흥 천일기도 10만등불사 입재식

영월 법흥사(주지 도안) 중흥불사 성취를 위한 천일기도 및 10만등불사 입재식이 8일 법흥사 적멸보궁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월정사 회주 인허스님과 주지 현해스님을 비롯 지역스님과 감태수 군수, 안재영 군의회장, 최광식 경찰서장을 비롯 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 중흥불사의 원만회향을 발원했다. 임연태 기자 (ytlm@buddhopia.com)

울산 실업극복센터 개소

10개사찰 60개단체 참여 급식·취업상담·교육사업

실업극복지원센터(공동대표 덕진·정토사 주지)가 10일 울산에서 문을 열고 실업사태 극복에 나섰다. 실업극복지원센터에는 울산경련, 불교여성회, 정토사,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등 11개 사찰과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YMCA 등 종교단

체와 시민단체 60여개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실업극복센터는 울산시 태화동 명정신철 4층에 80평규모로 급식실, 상담실, 무료급식 등의 공간을 갖추고 개원했다. 실업극복지원센터는 매일 점심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한편 창업교육을 비롯 취업, 가정, 법률, 건강 등의 상담을 통해 실업자들의 재깁을 돕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천미희 기자

해운스님 영결다비식 사부대중 1천명 참석

前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회장 해운스님의 영결다비식이 10일 해인사 보현암과 연화대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비구니회로 이루어졌다. 스님은 6일 오전 예불을 마치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가 오고감이 한결같네 청풍은 만리로다(如是來 如是去 一如 清風萬里)"라는 임종계를 읊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은호 기자 (yhlee@buddhopia.com)



▷ 10일 열린 해운스님 다비식.

고침 197호 '우리절 불사' 기사중 부어 무량사 주지 지연스님을 의연스님으로 바로잡습니다.

광주에 호남최초 불교병원

10층 규모...9개과 첨단진료 서비스

장례식장도 열어

최첨단시설을 갖춘 호남 최초의 불교병원이 광주시에 개원했다. 광주불교병원은 7일 천원(향림사 조실) 지성(보성 옥천사주지) 영조(증심사주지) 광민(무각사주지) 해월(한마음선원 주지)스님을 비롯 김두원 광주·전남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층 법당에서 개원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료시술활동에 나섰다. 이와 함께 부설 빛고을 장례식장도 문을 열어 진료에서 장례식장까지 갖춘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wwkim@buddhopia.com)

한마음선원 목포지원 22일 점안 개원대법회

한마음선원 목포지원(지원장 혜찬)은 22일 오전 10시 법당에서 개원및 점안대법회를 봉행한다. 목포시 상동 952-19번지 65평의 대지에 신축된 목포지원은 4월 기공식을 거쳤으며 총건평 1백50평 지상 3층 규모로 1층에는 중무소, 식당 등이, 2층에는 법당이, 3층에는 요사채가 건립됐다. 목포지원은 개원법회에 이어 오후2시 목포실내체육관에서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초청대법회를 봉행한다.

뜻밖의 재난! 액운을 미뤄막아 소원성취하는 초신진연가리개

소원 성취 관음사십이수주 호신경 묘법연화경 여러수량품 제16합

Advertisement for a Buddhist talisman (가리개) featuring a picture of a woman in traditional dress and a circular diagram. Text includes: 관음사십이수주: 높이 5자 9치 넓이 2자 5치 한지·역, 묘법연화경: 높이 5자 5치 넓이 2자 5치 흑한지 금본, 가격 ₩198,000, 불국기획 02)737-0048 011)630-0108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Advertisement for a Bagua Mandala artwork. Text includes: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제: 팔괘: 고급 나무 목판 광각형, 만다라: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 처리, 규격: 45cm x 45cm, 보급가: ₩ 300,000 → ₩ 150,000, 보급처: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4-9491 야간: (0342) 706-3060